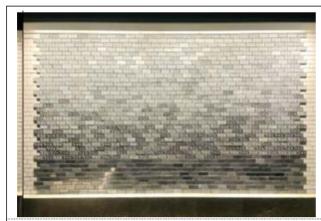
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신규 참여자 93명 명패 각인





△ 명패 설치 완료

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(이사장 신순철)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(이하 심의위원회)에서 동학농민혁명 신규 참여자로 의결된 93명의 명패를 각인하 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모관에 새롭게 모셨습니다.

『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(이하 특별법)』에 따라 2004년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3,908명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의결하였습니다. 2025년 2월, 2023년~2024년에 유족의 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직권 조사로 의결된 참여자 93명에 대한 명패를 새로이 각인하여 추모관에 봉안하였습니다.

추모관에는 오석(烏石)에 새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패가 가나다 순으로 모셔져 있습니다. 내부 공간은 터치패드를 통해 녹두꽃 영상으로 헌화할 수 있고, 한쪽 벽 면에는 추모영상이 상시 재생되고 있습니다.

현재 심의위원회 운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관한 업무는 특별법에 따라 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. 참여자 또는 유족등록과 관련한 신청 문의는 기념재단 연구조사부(063-530-9434~5)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